

# 영·유아기 자녀를 둔 남성의 부성경험에 관한 일 연구

The Experience of Paternity : Fathers of Preschool Children

황정해(Jung-hae Hwang)<sup>1)</sup>

백경임(Kyung-im Baik)<sup>2)</sup>

## ABSTRACT

Using ethnographic methods, this study identified the meaning of paternal experience through 1 to 2 hours of individual interviews with the fathers of preschool children. The interviewees were 33 middle-class fathers from 28 to 41 years of age, Twenty had infants under 36 months of age the others had preschool children 37 months of age and older. Results were summed up with two statements : The first is that paternal experience with the under 36-month-old infants can be called “the stage of adjustment”. The other statement is that paternal experience with 37-months and older preschool children can be called “the stage of model-building as a father”.

**Key Words** : 부성경험(paternal experience), 영아기 아버지(father of infants), 유아기 아버지(father of preschool children 37 months and older), 아버지로의 적응기(stage of adjustment), 아버지로서의 모델형성기(stage of model-building as a father).

## I. 서론

현대인들은 인생의 절대적 의미를 일이나 업적보다는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순수한 기쁨에서 찾으려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젊은 연령층의 남성들은 인생에서의 행복과 목표를 직업에서가 아니라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와 가

족생활에서 찾으려고 하는 가족 지향적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시대에 따른 아버지상의 변화를 고찰한 결과 이상적인 아버지상이 아버지로서 가부장적인 권위만을 가지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서 벗어나 다정하고 친구같은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식으로 변화된 것을 (한경혜, 1997; 황정해, 2003) 통해서도 파악해

<sup>1)</sup>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시간강사

<sup>2)</sup>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가정교육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Kyung-Im Baik, Department of Human Economics Education, Kyung-Ju Campus, Dongguk University, Kyung-Ju city 780-714, Korea  
E-mail : pgy@dongguk.ac.kr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자녀양육과 역할수행에 대한 의식을 살펴 본 연구(한은주, 1998)에 의하면 젊은 아버지들이라 할지라도 의식면에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고 역할수행을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직장에 적응하고 바쁜 직장생활에 쫓겨 자녀를 돌볼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 제시된다. 이렇게 이상과 현실이 괴리된 상황에서 “과연 남성에게 아버지됨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1980년대 이후부터 ‘아버지 경험’ 자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되었다(함인희, 1997). 즉,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남성 자신의 정체감과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제에 관심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아동과 가족 연구 분야에서는 남성들이 아버지됨을 통해 겪게 되는 경험에 대한 연구를 주로 부모기로의 전이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모기로의 전이과정에서 경험하는 보상과 대가라는 측면이 조사되었다(송지은, 1994; 한경혜·이정화, 1995; 김희숙, 1996; 조선희, 1998; 이순희, 2004). 이러한 연구에 의하면 남성이 부모기로의 전이과정에서 얻게 되는 성취감, 기쁨, 만족감등은 보상이 되며,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수반하는 것은 대가의 측면으로 확인된다. 또한 외국의 문헌을 보면 보상의 측면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성취감, 자녀 성장에 영향을 주며 옆에서 지켜 볼 수 있는 기회의 증가(Lamb, Pleck & Levine, 1985), 부모가 됨으로써 얻게 된 기쁨과 만족감(Russell, 1974), 방위가족과의 접촉 증가(Belsky & Rovin, 1984)를 들고 있으며, 대가의 측면은 부모기로의 전이과정에서 심리적·신체적인 어려움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

한 연구들은 양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구체적으로 남성이 아버지가 됨으로써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가? 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살펴볼 수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인 인터뷰법을 통해서 남성의 부성경험의 내용을 살펴 볼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질적연구방법을 통하여 남성의 부성경험을 연구한 것은 몇 편(황정해·이정덕, 2000; 황정해, 2003; 황정해·백경임, 2004)에 불과하며 이와 유사한 영역인 부모됨 경험의 주제로서 여성의 모성경험을 조사한 연구들(변혜정, 1992; 노영주, 1998)도 소수 찾아 볼 수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남성의 부성경험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 심리학자인 엘렌 갈린스키(Ellen Galinsky)는 ‘자녀와 더불어 성장하는 부모(1996)’란 문헌을 통해 남성도 아내의 임신기부터 시작하여 자녀의 성장 발달에 따라 부모로서 성장해감을 밝히고 있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아버지도 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저자는 부모기를 한 성인의 발달 과정으로 보고 그 단계를 탐색하였는데, 본 연구자는 우리 나라의 아버지들 역시 부성경험을 통해서 남성의 성인기 이후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인기 발달과정에서 겪게 되는 부성경험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본 연구에 앞서 아내가 임신기인 예비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성경험을 조사하였다(황정해·백경임, 2004). 본 연구는 그 이후 성인기 발달 단계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성경험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아기와 유아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본 연구에 앞서

취학전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남성의 부성경험을 연구(황정혜·이정덕, 2000)한 결과 영아기와 유아기를 구분하여 좀더 세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즉, 영아기와 유아기는 각 다른 발달 단계이지만 인접한 발달 단계로서 유사한 부성경험으로 묶어 볼 수 있고 또한 자녀의 성장에 따른 부성경험의 차이는 아버지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비교 고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다.

둘째, 영·유아기 자녀발달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많은 연구결과에서 제시되고 있다. 즉, 영아기의 아버지됨이 영아의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고, 영아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는 각기 다른 종류의 자극의 양은 부모 어느 한 쪽에서 받는 일방적 자극에 비해 영아의 지적, 사회적, 발달에 보다 효과가 있으며(Lamb, Pleck & Levine, 1985), 아버지는 아동의 성 역할, 성취 동기, 도덕성 발달에 독립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Lamb, 1986)고 보고 있다. 그리고 Wilder (1982)는 아버지가 사랑을 가지고 영아를 돌볼 때 영아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 발달 할 수 있다(이순희, 2004; 재인용)고 하였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보면 영아기때 아버지는 주로 양육보다는 놀이 참여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은 영아에게 사회적 성격의 세계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확대시켜줌으로써 자녀의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영아기때 아버지는 자녀와 점진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출산 후 아버지가 영아에게 끌리게 되는 것은 본능적으로 내재해 있는 영아에 대한 아버지다움이 영아의 사소한 움직임에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임으로써 표출되며, 영아와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

하는 관계로 진전되고, 이러한 관계는 영아와 놀이위주로 진행되어 강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렇게 이루어진 아버지와 영아의 관계는 영아가 1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가 획득하게 되는 아버지됨에 영향을 주게 된다(May, 1982).

그리고 유아기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된다. 유아는 성장해가면서 부모가 제공하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제공에 의해 생활규범과 가치관을 습득하며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한다.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할 때 유아발달의 여러 측면이 더 잘 발달된다는 연구결과는 많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영아의 인지발달을 강화하고, 성 역할 발달에 유의한 관계가(Biller, 1981)있으며, 에릭슨(Erikson)은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이론에서 3단계인 유아기(4세-6세)는 아동의 관심이 자기 신체를 떠나서 주위 사람들로 확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존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아버지는 영·유아기의 자녀에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가 되므로써 이 시기의 아버지들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와 유아기를 구분해서 각 시기의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자녀와의 관계 측면과 아버지됨이 아버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관점에서 그들의 부성경험 내용을 살펴보고 각 시기에 따른 부성경험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첫 자녀를 기준으로 하여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아

〈표 1〉 0에서 36개월 이하의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사 례	아버지 직업	학 력	자 녀	아내 직업
1	29세, 회사원	대 졸	3세 딸	회사원
2	31세, 회사원	대 졸	3세 딸 / 6개월 아들	전업주부
3	29세, 아버지사업함께 합	대 졸	2세 6개월 아들	전업주부
4	28세, 회사원	대 졸	1세 딸	전업주부
5	39세, 회사원	대 졸	3세 딸	회 사 원
6	34세, 회사원	대 졸	3세 아들, 1세 딸	전업주부
7	32세, 회사원	대 졸	3세 아들	전업주부
8	32세, 엔지니어	대 졸	2세 아들	회 사 원
9	39세, 회사원	대 졸	3세 딸, 임신 6개월	전업주부
10	31세, 회사원	대 졸	3세 딸, 2세 아들	전업주부
11	33세, 회사원	대 졸	3세 아들	전업주부
12	34세, 공무원	대 졸	1세 1개월 아들	전업주부
13	30세, 회사원	대 졸	3세 아들	전업주부
14	29세, 공무원	대 졸	3세 아들, 임신 5개월	전업주부
15	34세, 회사원	대 졸	3세 아들, 1세 딸	전업주부
16	33세, 회사원	대 졸	3세 아들	전업주부
17	32세, 회사원	대 졸	2세 4개월 딸	회 사 원
18	33세, 회사원	대 졸	3세 딸	전업주부
19	34세, 회사원	대 졸	3세 딸	전업주부
20	28세, 회사원	대 졸	3세 아들, 2세 딸	전업주부

버지들이었다. 이렇게 영아기와 유아기를 구분하여 아버지들을 조사한 이유는 유아기의 자녀를 둔 아버지는 자녀의 영아기 발달 단계를 경험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느끼는 심리적 경험과 자녀와의 관계를 응답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영아기와 유아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에 해당하는 아버지들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응답자는 모두 33명으로 그들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징은 다음 <표 1>, <표 2>와 같다. 이와 같이 표를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은 첫아이의 연령에 따라 영아기와 유아기의 자녀를 두고 있는 아버지들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나이는 만 나이로 제시하였고 자녀의 나

이는 대화중의 자녀 연령과의 일치를 위하여 생활연령으로 제시하였다.

영아기에 해당하는 0세에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아버지는 모두 20명으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연령분포는 25세에서 30세까지가 5명, 31세에서 35세까지가 13명, 36세에서 40세까지가 2명이었다. 학력은 모두 대졸이었으며, 직업은 회사원 16명, 공무원 2명, 개인업 1명, 엔지니어 1명이었다. 아내의 경우는 4명은 취업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전업주부였다.

유아기에 해당하는 36개월에서 취학전 자녀를 둔 아버지는 모두 13명으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연령분포는 25세에서 30세까지가 1명, 31세에서 35세까지가 4명, 36에서 40세까지가 6

〈표 2〉 36개월에서 취학전의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사 례	아버지 직업	학 력	자 녀	아내 직업
1	29세, 회사원	대 졸	6세 딸, 임신 9개월	전업주부
2	39세, 개인사업	대 졸	6세 아들, 4세 아들	전업주부
3	34세, 회사원	대 졸	6세 아들, 3세 아들	전업주부
4	35세, 회사원	대 졸	6세 아들, 3세 딸	전업주부
5	41세, 개인사업	대 졸	5세 딸, 3세 아들	전업주부
6	36세, 공무원	대 졸	6세 딸, 2세 아들	전업주부
7	33세, 회사원	대 졸	5세 딸	회 사 원
8	37세, 회사원	대 졸	6세 아들, 2세 딸	전업주부
9	41세, 회사원	대 졸	6세 딸, 5세 딸	전업주부
10	39세, 회사원	대 졸	5세 아들	회 사 원
11	35세 택시기사	대 졸	4세 아들, 2세 아들 1세 아들	전업주부
12	40세, 회사원	대 졸	5세 아들	전업주부
13	40세, 회사원	대 졸	6세 아들, 2세 아들	전업주부

명, 41세에서 45세까지가 2명이었다. 학력은 모두 대졸이었으며, 직업은 회사원 9명, 공무원 1명, 개인업이 3명이었다. 아내의 경우는 2명이 취업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전업주부였다. 조사 대상자의 학력이 모두 대졸이며, 아내가 전업주부인 비율이 높은 점은 본 연구의 결과 해석에 고려를 요하는 부분이 된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는 다양한 탐사질문이 가능한 인터뷰법을 이용하여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성경험의 내용을 탐색하였다.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의 관점, 상식, 주관적 경험과 의미 등 연구대상의 경험세계와 의미세계를 중시하고 과학적 일반화 보다는 일상생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기술하는 문화기술적 연구법(이희봉, 1998)에 근거를 두었다. 면접과정과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면접은 인사와 일상적인 이야기들 예를 들어 날씨나 “아이가 이쁘시죠” 등의 친

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주고 받은 다음에 연구 대상자의 삶에 관한 이야기(life history)를 나누었다. 그 다음으로 아버지로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심리적 경험과 정체감과 관련된 질문들 - 아버지가 되고 나서 변한 점은? 가족관계, 부부관계, 친구관계, 직업에 대한 태도, 개인적·심리적 변화는? - 을 하였다. 이러한 질문은 아버지됨이 남성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버지로서의 일상생활의 경험들 -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자녀와의 친밀감, 신체적인 접촉이나 애정표현의 정도 - 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응답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경로는 친구, 친척, 이웃의 소개, 놀이공원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아버지들과 그들의 소개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서울, 경기도(과천, 평촌), 경남(마산, 창원), 경북

(경주)에 거주하는 아버지들이었다. 조사시기는 2000년 3월부터 2001년 3월 까지이다. 응답자와의 만남은 공원, 찻집, 응답자의 집, 직장에서 이루어졌으며 면접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진행되었다. 응답자의 허락하에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여 인터뷰가 끝나면 그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여 기록하였다. 출발부터 구조화된 틀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처음에 설정했던 연구내용에 준하여 응답을 여러번 숙독하여 범주화가 가능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틀은 아버지가 됨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개인적 변화 특성과 자녀와의 관계 경험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0에서 36개월 이하의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성경험 내용

##### 1) 아버지가 됨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개인적 변화 특성

##### (1) 아버지의 미래 전망과 경제관념의 변화

남성은 자녀의 영아기 시기에 자연스럽게 '아버지'로 적응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로써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장 일차적인 변화는 경제관념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실제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 아이의 양육비로 인한 지출증가로 자신의 소비패턴이 변화되었으며, 자신의 진로 결정시 부양자로서의 책임감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직장을 가지게 되었어요. 계속 공부를 할려고 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 직장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고민을 조금 했지만 ... 물론 주변에서는 제 의사대로 하라고 했지만... 직장을 갖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저의 의견에 따라주고. 애기가 생기고 나니깐 제가 달라지더라구요. 지금은 좋아요, 만족하고.”

(28세, 1세 딸 아버지)

“물론 결혼 전 보다는 결혼하고 나서 돈 씹씀이가 줄어들긴 했지만 자식 놔놓고 나니 우유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할 때도 술값이 안 내어지고... 버스타고 다니게 되고 담배 살 때도 ‘이 돈이면 기저귀 살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39세, 3세 딸 아버지)

“결혼하고 나서는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돌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막상 애를 낳고 나니깐 돈 들어가는 것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애 우유값도 만만치 않구요.”

(33세, 3세 아들 아버지)

위의 사례들을 보면 자녀가 탄생하고, 실제적인 양육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자녀에 대한 부양의식이 강해짐을 볼 수 있다. 물론 남성은 아내의 임신기에도 부양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손인아, 1993; 황정해·백경임, 2004) 자녀가 태어나자 자녀를 위한 소비지출이 증가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좀더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고, ‘돈’에 대한 가치변화가 따른다. 그리고 이러한 남성의 가치변화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렇게 자신의 삶의 방향이 경제적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 부적응을 보이거나 불행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가 본 연구대상자들이 모두 대졸자들이라 그러한지는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경제적 제약이라는 불편을 감수하는데 불만을 나타내는 사례는 없었고 그 상황을 수용하고 오히려 만족하는 태도는 눈에 띄는 특징 중의 하

나라고 하겠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 남성들은 아버지로 적응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점은 여성이 아이를 임신하는 순간부터 그 아이로 인해 자신의 삶에 궤도 수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실제 초기 양육기인 이 시기에 ‘어머니’로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체감 혼란과 심한 내면적인 문제들에 부딪히는 것(변혜정, 1991)과는 대조적인 현상으로 파악되었다.

## (2) ‘가족공동체’ 의식 인식

자녀가 태어남에 따라 남성은 자녀를 통해 가족공동체 의식을 인식하게 되고 가족생활이 자신의 다른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된다. 이러한 특성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족생활에 활력을 주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일단 마음가짐이 변했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사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이제 삶의 계획을 세우는데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31세, 3세 딸/ 6개월 아들 아버지)

“한 3살 되니깐 일단 애가 말을 알아듣잖아요. 물론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서 큰 소리도 내고 하지만 딸이라서 그런지 애교도 많이 부리고 그래요. 사실 결혼생활을 하면 집에서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애 때문에 웃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애를 통해서 많이 웃고 활력소를 얻는 것 같아요. 집의 활력소가 되죠.”

(34세, 3세 딸 아버지)

위의 사례들을 통해서 보면 남성은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가족의 의미를 더 강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의 삶을 가족이란 단위로 꾸려나가려는 의식이 뚜렷해지고, 자

녀도 또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됨으로써 가족관계에 활력을 주며, 가족연대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직업역할과 가족 역할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역할에서의 경험들이 직업역할로부터의 좋지 않은 경험들을 완충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연구결과(김소영·옥선화, 2000; Barnett 등, 1992)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 2) 자녀와의 관계 경험 특성

### (1) 자녀와의 유대감 형성과정

남성이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은 점진적으로 발달되며,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정체감을 발달시킨다.

“애를 막상 보면 30분 정도는 잘 돌보는데 그 다음에는 적응이 안되어서 잘 못 돌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처갓집에 아이를 한달 정도 두었는데 그때 가서 보면 신기하고, 안아주고 하다가 조금 지나 칭얼대면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잘 때 애기가 보채면 와이프에게 짜증은 못 내지만 싫어하고 했는데. 이제 안 그래요. 애기가 크니깐 정이 들어가지고...” (29세, 2세 6개월 아들 아버지)

“아이가 나를 닮았다는게 너무 신기하고 가슴이 벅찼어요. 날 닮은 아이를 보니깐 ‘내가 아버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2세, 3세 아들 아버지)

“처음에는 애가 생겼어도 아버지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근데 좀 키우다 보니깐... ‘아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처음 갓난 아기일때는 조심스러우니깐 내가 우유먹이고 하는 것을 가끔 하지만 많이는 못 도와주죠. 회사를 다니니깐... 조금씩 도와주죠. 그러면서 ‘내가 아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가 커가면서 재롱을 피우는 것을 보면서 ‘떨린 식구가 있구나’ 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느껴지고... 책임감이 더 생기고..." (33세, 3세 아들 아버지)

"처음에 계속 누워만 있고... 아이가 '아빠'라고 처음 말을 하였을 때 '정말 내가 아빠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더욱 들더라구요. 그때부터 아이에게 더 애착이 가기 시작했죠."

(28세, 3세 아들 / 2세 딸 아버지)

위의 사례들을 통해서 남성이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파악해 보면 아버지는 자녀와 친밀감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달해 가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엘렌 갈린스키(Ellen G. 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었다. 연구자의 견해로는 여성이 임신 기간 동안 몸으로 느끼면서 어머니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애착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반면 남성은 실제 자녀를 낳고 나서 키우는 과정에서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아버지'로서의 정체감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해 준다고 보여졌다. 아내가 임신기에 있는 남성도 그 기간동안 아버지로서 준비를 한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황정혜 · 백경임, 2004) 이 보다 더 실제적인 '아버지'로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녀를 낳고 난 뒤의 시기라고 생각된다. 이는 실제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고 아이를 위해서 자신이 뭔가를 해 줌으로써 자신이 아버지란 사실을 확인하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추상적인 아버지 개념을 현실화시켜나가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2) 자녀 돌봄에서 느끼는 심리적 특성

첫째, 영아기 자녀를 둔 남성은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아내보다 자신이 능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며, 아내가 자녀와 좀 더 친밀하다는 느낌에서 질투감이나 소외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내가 아이를 다룰 때는 불안정하고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드는데 아내나 장모님이 아이를 다루는 것은 너무 익숙하고 안정감이 있어 보여서 질투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34세, 1세 1개월 아들 아버지)

"이건 모순적인 느낌인데 아이와 아내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내 자신이 소외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내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나 아이가 나랑 있다가 울게 되면 아내가 울음을 그치게 할 때 아이가 아내와 더 가까운 느낌이 들죠."

(32세, 2세 아들 아버지)

"한 6개월까지는 아이가 엄마랑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내가 아이 우유도 먹이고 목욕도 시키고... 난 그냥 아내를 도와주는 입장이었죠." (32세, 2세 4개월 딸 아버지)

위의 사례들을 보면 아버지는 아내와 아이와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내의 아이 다룸에 위축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달리 아이가 신생아 시기를 지나 자신도 아이를 잘 다룰 수 있는 시기가 되어야 친밀감을 느낄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자녀 돌봄에 덜 관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자녀가 아플 때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아내와 자녀가 자신에게 의존해 있다는 느낌은 남성으로 하여금 아버지로서의 정체감을 강하게 느끼게 해 주는 계기가 된다.

"애가 아플때요... 애가 아플 때 정말 내가 누군가를 신경써야 할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느낄 때 '내가 아버지가 되었구나'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물론 와이프도 있지만..."(31세, 3세 딸/ 2세 아들 아버지)

"한 번은 애가 뜨거운 주전자 물에 다리를 덴적이 있어요. 그때 아내는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는데 제가 일단 찬물을 끼얹고, 응급실로 급하게 데려간 적이 있어요.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죠. 그



때 아내가 ‘당신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 했어’라고 했을 때 우쭐한 기분이 들었죠. 내가 아버지로서 할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29세, 3세 딸 아버지)

## 2. 36개월에서 취학전의 유아기 자녀를 둔 남성의 부정 경험

### 1) 아버지가 됨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개인적 변화 특성

#### (1) ‘가족의식’의 강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부부관계의 특징을 “부모”라는 연대감으로 결속되어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가족의식이 강화됨을 보인다.

“부부관계는 아이들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고, 또 ‘이제 내 여자다’ 싶어 신경도 덜 써지고... 솔직히 한마디로 아내보다는 애들 비중이 더 커졌죠.”

(33세, 5세 딸 아버지)

“아내와의 관계는 전보다 대화가 짧아졌고 관심이 아이에게로 쏠리지요. 아이들 걱정으로 아이들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게 되고 우리 문제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면 이야기가 없어진 것 같아요.”

(36세, 6세 딸/ 2세 아들 아버지)

“이젠 아이들 엄마죠. 함께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키워나가야 하니깐... 그런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물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젠 아이들이 중심이 되고... 우린 함께 한다는 그런 느낌이죠.”

(39세, 6세 아들/ 4세 아들 아버지)

위의 사례들을 보면 자녀의 연령이 이 시기가 되면 자녀가 가정의 가장 중심적인관심의 대상이 되어가며 이러한 특성은 유아기 자녀를 둔 남성의 삶에서 자녀가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부부관계는 부부관계로서 보다 부모로서의 연대감이 더 강해짐을 알 수 있었다.

#### (2) 대인관계의 태도 변화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 과정을 통해 자신의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내성적인 성격이 개방적으로 변화된다는 연구결과(노영주, 1998)와 마찬가지로 남성도 자녀를 키우면서 대인관계가 원만해짐을 보였다. 친구들과는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만나는 횟수는 줄어들지만 ‘자녀’라는 공통된 화제로 동질감을 느끼며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사례들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아버지들의 부정경험의 폭도 더 넓어짐으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친구들과의 화제가 주로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35세, 6세 아들/ 3세 딸 아버지)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것이 있는데요. 꼭 아빠가 되어서라기 보다는 먹고 살려고 하니깐 서로 만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도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의지도 되지요.”

(41세, 6세 딸/ 5세 딸 아버지)

“대인관계가 더 원만해지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되었어요.”

(29세, 6세 딸/ 임신 9개월 아버지)

“자주 못만나게 되는 점은 있으나 서로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유대감을 느껴요.”

(37세, 6세 아들/ 2세 딸 아버지)

“실제적인 만남을 위한 시간은 부족하지만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의 동질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지요.”

(39세, 5세 아들 아버지)

“제가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었는데 애를 키우면서 제 자신이 많이 변했어요. 사람들과도 허물없이 된 것 같고, 주변에서도 제가 웃음이 많아졌다고 해요.”

(34세, 6세 아들/ 3세 아들 아버지)

위의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 아버지 자신의 대인관계가 더 원만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래 내성적이었다고 자신의 성격을 생각하고 있던 경우는 현재 자신이 활발해졌으며 직장 생활에서도 인간관계가 더 편안해졌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많아진다고 하였다.

## 2) 자녀와의 관계 경험 특성

### (1) 아버지 삶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자녀’

자녀가 성장해 감에 따라 ‘자녀’가 아버지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인식되었다. 즉, 자녀가 유아기에 이르면 아버지는 자녀로 인해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경험을 많이하게 된다. 자녀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고 자녀로 인해 자신의 삶의 태도가 좀더 확고해지고, 좀더 성실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이가 환하게 웃어 줄 때 난 너무 큰 만족감을 느껴요. 내가 그의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것 같고... 이것은 정말 큰 보상이죠.”

(40세, 5세 아들 아버지)

“당연히 아버지로서 정체감이 있지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님이 날 부르셔서 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젠 네가 진정한 한 집안의 가장이 된거라구요. 사실 처음에는 아들이 태어났으니깐 ‘아빠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예전에는 밤에 운전하다가 피곤하고

지칠때는 아내 얼굴이 떠올랐는데 요즘에는 아이들 얼굴이 더 떠올라요. 그럴때면 힘이 솟는 것이 느껴지고 이런 것이 아버지란 느낌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지요.”

(35세, 4세 아들/ 2세 아들/ 1세 아들 아버지)

“퇴근하면 애들이 쪼르르 달려와서 ‘아빠’ 하고 매달리면... 이게 행복이지 싶고 그래요. 언제 저 놈들이 커서... 힘들기는 해도 집에 오면 그득한 것 같아 좋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요.” (41세, 6세 딸/ 5세 딸 아버지)

위의 사례들을 통해서 보면 자녀의 연령이 유아기에 해당하는 경우 아버지들은 아이가 의 사표현을 하고, “아빠”라고 반갑게 불러 주는 작은 경험들을 통해 행복감을 느낀다. 자녀에 대한 부양자로서의 책임감만 느끼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의 삶에 만족감을 주고 큰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들은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자녀가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어감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고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려는 ‘아버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자녀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가 자신에게 의사결정권을 줄 때 가장으로서의 위엄을 느끼게 되며, 아버지로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는 태도를 갖게된다.

“아이를 기르면서 항상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한 번은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녀석이 옆에서 불펜에 라이터를 가지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 뿐 아니라 양치질을 하는데 ‘우웩우웩’

하는 소리를 억지로 내면서 따라 하는거예요. 그 후로 아이 앞에서는 모든 언행을 조심하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을 정말 실감하죠.”

(39세, 6세 아들/ 4세 아들 아버지)

“이젠 애들이 보고 따라하니깐 아이 때문에 길거리에 휴지도 함부로 버려서도 안되는 것 같고... 아무튼 행동에 조심이 많이 되죠.” (40세, 6세 아들/ 2세 아들 아버지)

“집사람이랑 아이들이 어떤 것에 대해 결정권을 줄 때죠. 예를 들어 아내가 ‘아빠 오면 물어보자’,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자.’ 그러면 아버지로서 어떤 위엄도 생기고 자식들한테 더 좋은 모습을 보일려고 노력하게 되죠.”

(41세, 5세 딸 / 3세 아들 아버지)

위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남성들은 자녀에게 좋은 아버지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안정지향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남성은 아버지 역할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더 확립하고 도덕성이 확고해 진다는 연구결과(Parke, 1981; 허선자, 1992 재인용)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또한 유아기 자녀를 둔 남성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권위를 갖게 되는 기회가 많고 이를 통해 자신이 중요한 사람임을 확인받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녀의 발달 특성상 아버지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으로써 아버지는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권위를 발휘할 기회가 많아지고 이런 경험을 통해 아버지 자신은 자아 존중감이 고양된다고 보여진다. 이는 아버지가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 그의 자아 존중감이 강화되어 부모역할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의 무능의 확인으로 부모역할 수행을 제

대로 못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김기현, 1998)와 아버지 역할 수행은 아버지 자신에게도 자아 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안선정, 2000; Parke, 1981)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 (3) 자녀의 사회적응을 염려하는 ‘아버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는 사건을 중요하게 받아들였다. 즉 자녀를 가정이란 울타리에서 사회의 장(場)인 유아원에 보내게 됨으로써 아버지는 자녀가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할지를 염려하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버지로서의 자신을 되돌아 보고 더욱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느낌으로써 아버지 자신이 성숙된다고 하였다.

“자녀의 적응 문제를 걱정하고 과연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수업은 잘 받을 수 있을지... ‘벌써 이렇게 컸나’ 하는 생각도 들고... ‘다른 아이 만큼만 따라왔으면’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36세, 6세 딸/ 2세 아들 아버지)

“나로서는 ‘다시 한 번 더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죠.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계획도 세우고 아이가 이제 취학도 해야 하니깐 아이의 적성도 생각하고 싶고... 아직은 이룰지도 모르지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지요.”

(34세, 6세 아들/ 3세 아들 아버지)

“우선 또래 집단과의 공동생활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이른 나이에 유치원에 들어갔기에 잘 적응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자식을 다 키웠구나’ 하는 마음과 훌쩍 커버린 아들을 보며 앞으로 더 필요한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했죠.” (37세, 6세 아들 / 2세 딸 아버지)

“교육의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처음 단계로서 유치원에 아이가 간다고 할 때는 ‘단체 생활인데 잘 할 수 있을까’하

는 걱정과 애처로움이 들고 한편으로는 ‘대견스럽다’는 느낌도 들었죠.”

(35세, 6세 아들/ 3세 딸 아버지)

“만감이 교차하였어요. 세월이 ‘벌써’라는 생각도 들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 는 생각도 들고,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어야 한다’ 는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죠.” (39세, 5세 아들 아버지)

“애가 유아원에 가니깐 ‘세월이 이렇게 흘렀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는 생각이 났죠.”

(33세, 5세 딸 아버지)

“애가 유치원에 간다는 것은 걸음마를 처음 했을 때, 웅알거리거나 말을 처음 했을 때의 감격과 놀라움 처럼 커다란 의미가 있었어요. 또한 이 만큼의 시간이 흘렀으며 정신없이 살아온 나에게 처음으로 시간의 흐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죠. 지난 6년 동안의 크고 작은 많은 일에서 보면 그때 그때 충실하려고 했고 뭔가 쫓기는 듯한 압박감에 뒤를 돌아볼 시간을 가질 수 없었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간다는 애기와 함께 자신을 통찰해 볼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어 좋았죠.” (40세, 6세 아들/ 2세 아들 아버지)

위의 사례들을 통해서 보면 자녀가 보급자리인 가정에서 사회속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인 유아교육 기관에 가는 연령이 되면 아이의 사회적응문제를 매우 염려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젠 자녀를 마냥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비교되는 환경으로 내보냄으로써 그들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아버지로서 자신의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고 삶에 대한 재 점검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아버지 자신이 한 번 더 성숙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은 아버지됨 경험을 통해 아버지 자신도 성숙해진다는 연구결과(조복희, 1997)

와 일치하는 내용이라 하겠다.

## IV. 논 의

위에서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영·유아기 아버지들의 부성경험은 자녀의 발달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자녀의 성장발달에 따라 달라지는 부성경험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 각 시기별 아버지의 부성특성을 명명해 보고자 한다.

### 1. 자녀의 성장 발달에 따른 부성경험의 변화

첫째, 자녀가 영아기 시기에 남성들은 아버지로서 적응해 가는 과정을 겪는데 이는 자신의 미래전망과 가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남성은 부양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자신의 경제관념을 변화시키는데 이러한 경제적 제약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것은 아버지로 그들이 순조롭게 적응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유아기 자녀를 둔 남성들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올바른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자녀 발달 특성상 나타나는 ‘모방’의 증가로 인해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을 알아챌으로써 아버지로써 더욱 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게 때문이다.

둘째, 자녀와의 관계면에서 살펴보면,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경우 이들은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자녀의 반응이나 자녀로 인해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자녀와 점진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해 감을 보였다. 반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영아기 시기 보다 많이 가지게 되며 또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자녀’가 아버지 자신의 삶에서 더욱 중요한 존재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 시기 아버지들은 자녀로 인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기회를 영아기 시기 보다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다.

셋째,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아버지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영아기의 아버지들은 아이 다룸에서 아내에게 질투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는 아버지가 어린 영아를 다루기 쉽지 않음으로 인해 아내가 아이를 좀 더 잘 돌보거나, 아이와의 관계에서 아내가 자신 보다 더 친밀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이었다. 하지만 남성은 아이가 아플 때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아내와 아이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아버지로서 강한 정체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아버지로서 적응해감을 보인다. 이에 반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면서 자녀의 사회 적응에 대한 우려와 자녀의 미래나 부양에 대한 걱정으로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느끼게 되고, 자녀가 그 만큼 자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넷째, 아버지들의 ‘가족 공동체’ 인식에 대한 면을 살펴보면,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자녀가 태어남으로써 자신의 삶을 가족이란 단위로 꾸려나가려는 의식이 점점 뚜렷해지고, 자녀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되면 자녀가 가족생활에 활력을 주는 존재가 되어간다. 그리고 유아기의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부부관계를 부모라는 연대감으로 인식할 정도로 가족에 대한 의식이 더욱 강화되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아버지들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 가족의식이 점차 강화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섯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에게서 나타난 특성으로 자녀 양육 경험으로 인해 아버지 자신의 대인관계가 원만해짐을 보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좀더 분명한 인과관계와 영아기 시기의 아버지들이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점은 추후 더 면밀히 조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각 시기별 부성경험의 특성

첫째, 자녀가 출생하여 36개월이 된 영아를 자신의 가족원으로 맞이한 아버지들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으로 경제관념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아이와의 유대감을 점진적으로 발달시켜 나간다. 아기를 다루는 능력이 아내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는 질투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영아나 아내가 자신에게 의존해 있음을 느낄 때에는 부성으로서의 강한 정체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아버지로서 적응해 나간다. 이러한 체험들은 아버지로서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겪는 경험이므로 영아기 아버지의 부성경험을 “아버지로서의 적응기”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둘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자녀의 발달 특성상 아버지의 행동을 모방하려는 자녀의 태도가 늘어남에 따라 아버지로서 올바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며,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삶에서 자녀를 중요한 존재로 인식해 가고, 좀더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게 됨으로써 그들의 사회 적응과 부양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더욱 더 느끼고 이를 계기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부부관계는 부모라는 연대감으로 강화되고, 자신의 대인관계도 원만해지는 것을 체험한다. 이러한 체험들은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한 부성의 자각과 노력에 따른 경험으로 보여져 유아기 아버지의

부성경험은 “아버지로서의 모델 형성기”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 V. 결론 및 제언

영·유아기 아버지의 부성경험의 의미를 살펴보려는 의도에서 다양한 탐사질문이 가능한 개별적인 면접을 통해 이루어지는 질적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영아기의 아버지들은 ‘나’에서 ‘아버지’로 정체감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겪는다. 아버지로 적응해 가는 과정은 자신의 진로 결정시 자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을 위한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방식으로 경제관념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둘째, 영아기의 아버지들은 자녀와 유대감을 점진적으로 형성해 간다. 남성은 여성과 달리 실제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고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정체감을 발달시켜나간다.

셋째, 영아기의 아버지들은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아내에게 질투감이나 소외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넷째, 영아기 아버지들은 ‘가족공동체’의식이 점차 강해지면서 자신의 삶을 가족이란 단위로 꾸려가려는 의식이 뚜렷해진다.

다섯째, 유아기 아버지들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자녀의 발달 특성상 ‘모방’이 증가함으로써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려고 노력한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도 도덕적인 행동을 하며, 안정지향적인 사회구성원이 되어 간다.

여섯째, 유아기 아버지들은 ‘자녀’를 아버지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더욱 강하

게 인식해 간다. 이와 같은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 점차 강해지며 이로 인해 아버지 자신의 삶이 좀 더 확고해지며, 올바르게 살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일곱째, 유아기 아버지들은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는 것을 계기로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그들의 성장을 느끼면서 아버지 자신도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 보는 계기를 갖고 삶을 재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다.

여덟째, 유아기 아버지들은 부부관계를 우선적으로 ‘부모’라는 연대감으로 고려한다.

아홉째, 유아기 아버지들은 자녀양육 경험을 통해 대인관계가 원만해지며, ‘자녀’라는 공통된 화제로 친구나 동료들과 동질감을 경험한다.

열번째, 위의 특성들을 근거로 영아기 아버지의 부성경험은 “아버지로서의 적응기”라고 명명할 수 있었고, 유아기 아버지의 부성경험은 “아버지로서의 모델 형성기”라고 명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첫째, 남성의 삶에서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남성의 성인기 발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되며 둘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남성의 부성경험 특성을 각 단계별로 파악 해 봄으로써 자녀 성장에 따른 아버지들의 부모기로서의 적응을 돕고 그에 따른 부모양육방법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인터뷰법에 의한 연구방법의 한계점으로서 Cuba와 Lincoln(1981)이 제시한 “사례연구들이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거나 과장함으로써”(허미화, 1997 재인용) 해석상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과 연구대상자 선정과정이 본 연구자의 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점을 들 수 있다.

추후 연구를 위하여 제언을 하면 첫째, 남성

의 아버지됨만을 단독으로 연구할 것이 아니라 부부를 대상으로 아버지됨, 어머니됨의 전이과정과 자녀 돌봄에서 경험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그 원인을 규명해 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유아기 이후의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남성의 부정경험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에릭슨(Erikson)의 심리사회적이론에 근거를 두고 부정경험이 남성의 성인초기와 성인중기 발달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구분하여 좀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 참 고 문 헌

- 김기현(1998).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9), 49-62.
- 김소영·옥선화(2000). 기혼 남성의 아버지 역할과 직업 역할 몰입 유형화와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25-137.
- 김희숙(1996). 두 자녀 아버지의 심리적 경험과 아버지 역할 수행.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영주(1998). 초기 모성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변혜정(1992). 임신에서 초기 양육까지의 어머니 일 수행 경험으로 인한 “어머니”로서의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인아(1983). 임신과 출산시 아버지 - 남편으로서의 역할 인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지은(1994). 남성의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보상-대가 지각 - 사회적 지원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선정(2000).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놀이성과 아버지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명숙(1991). 부모전환기에서의 결혼 만족도 연구. *가족학논집*, 3, 31-54.
- 유영주(1999). *가족관계학*, 서울 : 교문사.
- 이인길 (1992). 취학전 자녀의 아버지 역할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순희 (2004).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보상 및 대가 지각과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선화 (1998). 아버지 만족감 및 스트레스와 아버지 역할 수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복희·정옥분·유가효(1997). *인간발달(개정판)*. 서울 : 교문사.
- 한경혜(1997). 아버지상의 변화, *사회문화연구소*
- 한경혜·이정화(1995). 남성의 직업 역할과 부모기 전이로 인한 긴장감/보상감. *가족학논집*, 155-183.
- 한은주(1998). 기혼 남성의 아버지 역할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23-39.
- 함인희(1997). 현대사회 아버지 상의 재발견. *가족과 문화*, 2(여름호), 한국가족문화학회.
- 허선자(1992). 아버지의 역할 지각 및 양육 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정해(1993).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정해·이정덕(2000). 남성의 아버지됨 경험에 관한 연구 - 취학전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43-65.
- 황정해(2003).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남성의 부정경험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정해·백경임(2004). 예비 아버지의 부정경험에 관한 일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25(5), 59-71.
- Barnett, R. C., Marshall, N. L., & Pleck, J. H.(1992). “Men’s Multiple Roles and Their Relationship to Men’s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4, 358-367.
- Belsky, J., & Rovine, M.(1984). “Social-network Contact, Family Support of Marriage and th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6, 455-462.
- Billar, H. B.(1981). *The Role of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 John wiley & Sons.

- Ellen G. 저. 김세희 외 4인 역(1996). *자녀와 더불어 성장하는 부모 - 부모기의 6단계* -.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Lamb, M. E.(1981). *The Father's Role : Applied Perspective*. New York : Wiley.
- Lamb, M. E., Pleck, J. H., & Levine, J. A.(1985).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 The Effects of Increased Paternal Involvement. In B. B. Lahey & A. E. Kazdin(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8*, 229-266. New York : Pleum.
- May, K. A.(1982). "Three Phases of Father Involvement in Pregnancy." *Nursing Research, Vol. 31*(6), 337-342.
- Merriam S. 저. 허미화 역(1997). *질적 사례연구법*. 서울 : 양서원.
- Parke, R. D.(1981). *Fathers*.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Russell, C. S.(1974). "Transition to Parenthood : Problems and Gratific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6*, 294-301.
- Spradley J. 저. 이희봉 역(1988).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Smith, S.(1997).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how men come to define themselves as fathers (Parenting)*.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2005년 2월 24일 투고 : 2005년 5월 13일 채택